

도토리야 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을 읽어주는 자연환경해설사 남분옥입니다. 친구들이 서있는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골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많은 나무들도 볼수 있고 장난꾸러기처럼 뛰노는 다람쥐들과 수수하게 피어난 야생화와 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과 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평화로워보이는 숲속에서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강한자와 약한자의 먹히고 먹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해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루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가운데 한 부분이 파괴되면 생태계의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연에는 섭리와 법칙이 있다. 섭리를 외면하고 법칙을 무시하면 자연은 보복을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자연의 보복을 당한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1949년 10월1일 천안문광장에서 모우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하고 10년뒤인 1958년 어느날 한 시골마을을 시찰하다가 참새들이 벼이삭을 쪼아먹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가정의 가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한 가정이 파탄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하면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참새들은 해로운 새들이라는 모우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참새소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없는 징과 팽과리 북을 치고 참새총과 각종 농약으로 많은 참새들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참새비가 내리듯이 참새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다음해 농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그 다음해 농사는 흉년이 들었는데요 왜 일까요? 그것은 메뚜기 등 해충들의 피해로 인해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결과 중국에서는 5천여만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하였다. 참새를 부검한 결과 위에는 해충의 4/3이고 4/1만 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러시아에서 참새를 공수해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지나치게 간섭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보복입니다.

그럼 이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애기 단풍이 유명한 여기 백양골에는 가을이 되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데요 그중에 일부 탐방객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도토리 밤 등을 배낭에 가득 주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백양골 터줏대감 몇백년된 갈참나무할아버지의 나뭇가지에는 올해도 많은 도토리들이 열릴건데요 그중에서도 나무로 싹틔울수 있는 도토리는 몇 개 안됩니다. 그것은 도토리를 먹이로 하는 다람쥐나 멧돼지들이 먹기도 하고 도토리거위벌레 같은 벌레들이 도토리가 여물기도전에 속에 알을 낳고 떨어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여 살아남은 도토리의 꿈은 어떤것인지 도토리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맨처음 나는 한 알의 도토리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는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나뭇가지에서 특하

고 땅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뭇잎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는 힘차게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나뭇잎들이 나를 포근하게 덮어주었고 다람쥐나 청설모도 나를 물어가지 않았습니다. 춥고 눈 오는 겨울을 나는 쪽 땅속에서 보내면서 따스한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보슬보슬 봄비를 맞고 따스한 물기가 나를 적시고 나의 껍질을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물기를 머금은 나의 껍질이 갈라지고 나는 햇님의 손을 잡고 땅위로 고개를 쪽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연두빛 작은 싹을 틔웠습니다. 10년20년 오랜 세월이 흘러 내게도 도토리가 열렸습니다. 어느덧 저는 커다란 참나무로 자라났으며 곤충들이 하나들 내몸에 집을 지었습니다. 특히 하늘소, 사슴벌레가 많이 살았습니다. 어느새 나는 많은 곤충의 아파트가 되었으며 새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도토리들이 나의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달려있습니다. 가을 햇볕에 잘 여물워서 다람쥐나 청설모등 나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겨울을 잘 날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주려구요, 다람쥐가 숨겨놓고 미처 찾아먹지 못한 도토리에서는 또다른 참나무가 자라나 큰 참나무숲을 이루어 많은 동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이 숲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숲을 찾아오는 학생친구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자연학습장으로 사계절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쉼터가 되어드리고 싶은 것이 제꿈입니다. 여러분 제꿈을 응원해 주실거죠!

도토리의 꿈은 참 소박하지 않는가요, 도토리가 꿈을 이룰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수 있는건 도토리를 주어가지 않는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져가는 도토리 때문에 도토리를 먹이로 하는 다람쥐들이 배가 고파요 그리고 큰 참나무숲을 이루고 싶은 도토리의 꿈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일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한분한분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의 해설을 마치면서 도토리의 꿈,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